

4강/ 하나님의 일꾼은 신실한 자이다.

I. 오늘의 포인트

1.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2.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신실함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해 본다.

II.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해결 방법: 자기 인식-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자.

1.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1)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 ① 교회의 일 : 거룩한 일 = 하나님의 일
- ② 세상의 일 : 세속적인 일(직업) = 세상 일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의 일을 거룩한 일로 정의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 한편 세상에서 하는 일들(직업 등) 세속적인 일이라고 가르쳐 왔다. 일면 동의이지만 일면은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은 교회 일과 세상 일이라고 구분하지 않았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사느냐? 하나님 밖에서 사느냐?로 나누었을 뿐이다. 성서를 보면 다윗은 왕으로 섬기고, 바울은 장막을 만든다. 이런 것을 볼 때 직업을 세상의 일로 나누지를 않았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가르쳤을까?

17세기 이후 이성의 극대화로부터 비롯된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성이 극대화 되면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을 찾지 않게 된다. 점점 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과학에서 주는 것을 더 신뢰하고 신봉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답을 찾지 못하게 되자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되고 교회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 방법은 교회는 거룩한 일, 세상은 악한 곳으로 나누게 된다.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도록 만들어 버린다. 교회가 삶의 답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교회의 사는 길을 거룩한 곳과 세속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로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2) 하나님의 일이란? 믿는 자들이 하는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단절된 곳이었다.

이것을 죽음의 세상, 어둠의 세상으로 성경은 표현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걷는 모든 걸음, 삶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 된다. 따라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가 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행하는 것도 세상의 일일 뿐이다.

2.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이었다. 누가 인간 예수를 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이 비밀을 말았다고 한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야 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공허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이것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즉 이 시간들은 매우 귀중한 시간일 것이다.

3.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다.

만일 어떤 곳의 책임자라면,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지시해야할 위치에 있다면 무엇을 가장 원할까? 능력? 기술? 뛰어난 지혜? 아니다.

1) 신실함이란?

성경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쓴다. NIV 성경에는 충성을 "faithful"로 썼다. 표준 새번역에도 "신실성"이라고 썼다. 이 말은 충성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실력보다, 능력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신실함이다.

1) 신실함이 가진 특징

① 신실함의 판단은 오직 주인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하고 실제 평가로 인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

바울은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라고 해 놓고 이어서 4절에 바울은 자신을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 이 말은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자신에게 일을 맡긴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평가하는 이들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다. 실제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이런 평가 저런 평가를 할 수 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 바울은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종이 게으른가? 신실한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 판단은 오직 주인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거리끼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을 판단하는 이가 주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4절 후반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② 말은 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행동은 주변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선 사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이것에 자유로울 수 있다.

③ 신실한 자는 지금 가진 모든 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믿는다.

진정한 종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십일조 정신이다. 신앙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종이 내 것 또는 나라는 것을 말할 때 이미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버렸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한다.(고전 4장6절) 스스로 왕이 되면 안 된다.(8절)

④ 신실한 자들은 모든 고난과 수모 등을 참는다.

바울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한다.(9절) 자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매 맞고 정처가 없고, 주리고 목말랐다고 한다.

왜 이런 수모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보이신 삶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헌신, 희생, 수고, 수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배울 점)

1.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그 무엇보다도 신실함이다. 능력, 지혜, 기술 그 어떤 것보다도 신실함이다. 신실함이 주님이 그 종들

에게 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2.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로워야 한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신실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 아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야 한다.

나침반 바이블